돈 버는 여자, 애 못 보는 남자 ; 양육지원 정책제언

김 선 미(광주대학교 교수)

Ⅰ. 맞벌이 가족의 살림살이 연구 ; 자녀 양육이 최대 이슈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심층면접에 기초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로서 맞벌이 가족의 아내로부터 가족의 경험과 그와 관련된 가치와 감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맞벌이 가족의 가정경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이 연구는 차츰 구체적인 과제로 진화하였다. 면접결과 맞벌이 가족의 주요 관심은 자녀양육이었으며 가정경영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제는 바로 이 자녀양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그에 따라 연구자는 녹취록 가운데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기술하며 그 결과 정책에 반영될 만한 사실들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혹실드(2001:329-346)는 풍부한 가족생활을 공유하려면, 가족의 요구를 줄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이는 방식에서 돌아서라고 한다. 즉 직장에 쏟는 시간을 줄여 가사를 분담하면 가족의 요구를 줄이지 않고 또 가족의 요구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맞벌이로 인해 자녀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 부부가 다 '집안 일'을 우선시할 것과 공적으로는 보육정책이나 국가의 지원정책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공공정책이 마련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개별 가족의 차원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맞벌이 가족의 생활모습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의 순서로 그려보고 맞벌이 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밝혀보겠다. 그 후 맞벌이 가족이 채택하는 양육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되 그 다양성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서 각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마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양육정책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지침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양립이 어려워 깨어진 가정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 맞벌이로 인해 이혼했거나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포기한 경우를 통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결과들(이숙현,2004)을 보면 결

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 등도 이유가 있지만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다른 대체재가 없는 경우가 주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제외하고 현재 그럭저럭 일-가정을 꾸려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연구할 때 참여관찰을 하거나 적어도 부부를 모두 면접하는 방식이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연구는 가족생활관리자인 아내들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가족생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인 여성에게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제약도 원인이 되며 자신의 남편을 면접하도록 소개하는데 꺼려하는 제보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남편이 느끼는 갈등은 알 수 없으며 드러난 경우에도 아내의 눈으로 본 것에 국한된다.

Ⅱ.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로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자녀를 기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와 달리 초등학생자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그러한 사교육비를 벌기위해 전업주부어머니들도 취업 혹은 재취업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미 취업해 있는 상태의 여성이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기 위해 취하는 노력들과 그 한계를 주시하는 본 논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모집단의 성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표본에 대해 연구자는 알음알음으로 개별적인 소수사례에 접근하였는데, 연구자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토속적인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로 인터뷰는 낮 시간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퇴근이후 제보자의 가정 혹은 연구자의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한 경우 남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가정환경에 관한 간단한 관찰이 가능하지만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시간내기가 직장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가 살고 있는 광주의 네 사례 그리고 진주의 네 사례를 합해 모두 여덟 사례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광주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진주지역은 본 학술대회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공동 주제 하에 주거의 문제를 다루는 장상옥 선생님께서 하셨다. 두 연구자는 면접의 질문을 공유하고 한 사례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대상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교환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에 대해 토의하였다.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자료는 전사(全寫)하였으며 A4 용지로 총 300쪽의 분량에 이른다.

질문은 결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도록 한 후 확인질문 혹은 반대질문 등으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답변의 범위를 제한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회피하였다. 녹취자료의 분석결과 제보자가 이야기를 주도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이 최초의 주제가 되기 쉬웠으며 가사분담을 놓고 남편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나 남편에 대

한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에서의 경험보다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어 갔으며, 재무관리나 소비지출과 같은 부분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보충 질문하였다.

2. 연구대상

자녀들의 연령을 제한한 결과 제보자들의 연령은 30세부터 40세까지로 드러났다. 자녀수는 여섯 사례가 두 명이었는데 세 자녀와 한 자녀를 둔 사례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수와 여성의 일이 관련되는 방식으로서 세 명인 경우에는 이제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며, 한 명인 경우는 일 때문에 한 명밖에 낳지 못해 몹시 아쉬우며 특히 한 아이에게 형제를 갖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직업별로 보면 두 명의 중학교 교사와 두 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교 사무직원과 민간단체 실무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야쿠르트 아줌마 즉 판매직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 고인숙씨와 지선희씨의 남편과의 면접내용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제보자특성

이름(나이) 거주지	직업	남편	자녀	집	소득
구순자(40) 광주	법원 기능직 (총16년, 결혼 후 15년째)	42세 법원 일반직	아들(14, 중1) 딸(11,초4) 딸(7, 유치원)	48평 아파트 (방 4, 욕실 2)	월500만원 정도
김미라(36) 광주	대학교 사무직원 (총18년, 결혼후 9년째)	40세 시청공무원	아들(8세, 초1) 아들(6세, 미술 학원 종일반)	29평 아파트 (방 2, 욕실 1)	월 450정도
최순옥(35) 광주	시민단체 상근실무자 (총 9년, 결혼 8년째)	38세 준공무원 (건강보험 관리공단)	아들(8세, 초1)	29평 아파트 (방 2, 욕실 1)	월 300정도
서현아(40) 광주	한국야쿠르트 아줌마(자녀"서너살"부터)	43세 토목건축 하도급자	딸(12세 초5) 아들(10세 초2)	32평 아파트 (방 4, 욕실 4)	월 350정도 (들쭉날쭉)
지선희(30) 진주	학원운영(결혼후 10년째, 남편과 공동운영)	38세 학원운영	아들(9,초등2) 아들(4,어린이집)	병용주택,37평 1층학원/2층주택	400만원
서혜진(39) 진주	농촌생활지도사 (결혼전 취업, 결혼 11년째)	42세 회사원	딸(12세,초등5) 아들(11세,초등4)	28평 아파트 (방 3, 욕실1)	500만원
강미선(37) 진주	중학교교사(결혼전 취업, 결혼후 7년째, 3년 휴직)	36세 판사	딸(8세,초등1) 딸(6세 유치원)	25평 아파트(관사) (방 3, 욕실1)	800만원
고인숙(34) 진주	중학교교사 (결혼전 취업, 결혼후 9년째)	37세 중학교교사	딸(8세, 초등 1) 아들(7세,유치원)	40평 아파트 (방 4개, 욕실 2)	600만원

*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假名)을 사용하였다.

Ⅲ. 맞벌이 가족의 생활모습

'가사는 그럭저럭 처리, 문제는 자녀양육'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맞벌이 가족의 생활모습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시간사용 때문에 전업주부가족의 경우와는 상이한데 그 가운데 가장 다른 영역이 바로 자녀양육이다. 면접대상이 되어 준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생활주기를 따라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갖춰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의 체계를 갖추는 것과 가사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취업을 지속하겠다는 결론이 포함된다. 이 절에서는 맞벌이 가족 아내의 구술을 통해 당사자와 남편의 생활모습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자녀의 생활모습을 또 재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맞벌이 가족 아내와 남편의 생활모습

1) 아내의 생활모습 ; 가정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아내의 생활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직장과 관련된 맞벌이 주부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자. 출근시간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일, 혹은 주택수리 등과 관련한 근무시간 중 외출, 회식할 때 빠지거나 아니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기 등이 가족일과의 병행에 보편적으로 관련된다. 면접할 때 관찰한대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일하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가 바로 직장일과 가족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긴장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보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가[1]와 휴직, 그리고 이동이 잦은 남편과 함께 가족생활을 꾸리기 위한 휴직 등 휴직에 따른 직장에서의 부담이나 지체감(遲滯感)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한 편 아내가 취업을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고 보다 윤택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인 이유, 남편이 보증을 서서 생긴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보다 소극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길러낸 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인간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를 자신의 숙고 혹은 타인의 권고를 들어 이야기 하고 있다.

한 편, 사회생활에 노출됨으로써 발전과 성장의 원리가 맞벌이 주부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개인적 발전을 위한 취미활동(김미라씨는 퇴근 후 오후 7시 경에 백화점 문화센터에 들러 주 1회 플룻을 배운다.) 혹은 직장생활의 필수조건을 갖추기 위한 대학원진학과 같이 '자기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밖 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최순옥, 서혜진)도 적잖게 발견되었다. 일단 부모가 없이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자녀들의 생활시간'을 토대로 가정 밖 활동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어린 자녀에게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후자를 희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족생활과 관련성이 보다 높은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자녀 양육을 대신 해 줄 사람 혹은 양육

1) 세 아이를 낳은 구순자씨의 이야기에는 우리나라 출산휴가기간 연장의 역사와 성차별적 직장문화가 점차 완화되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기관과 관련된 이야기, 낮 시간 동안의 자녀의 보호와 시간관리 상황 그리고 간식 챙기기, 초등학교의 어머니 참여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 잦은 출장으로 자녀들을 다른 곳에 맡기는 일 등이 직장생활과의 병행에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자신이 번 돈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금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자율적이었으나, 그러한 사교육에서도 부모 특히 어머니의 관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부재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맞벌이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낮 시간동안 '애가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밤 시간에 보상하기 위해 아이를 혹사했다거나(구순자는 아들을 붙잡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시킨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금전투자로 시킨 사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마가 관리·감시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아이의 성장을 자세히 그리고 서서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지극히 사무적이라거나 하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한 편 남편과의 가사분담 이슈는 이러한 모든 일을 가로질러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가족생활과 연관되었다. 맞벌이라는 평등주의적 전제는 가사분담에 관한 여성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편의 변화 자체, 가사분담의 정도, 가사분담의 영역, 남편의 가사참여가 자녀의 가사참여로 이어짐, 그리고 남편의 가사참여로 인한 불편함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남편의 가사분담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몸이 약하다 또는 아프다고 강조해서 거듭 말하기, 직접 혹은 자녀를 통해 칭찬하기, 남편이 그 일을 잘 못 한다고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기,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기- 을 주부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아내들이 보는 남편의 가사참여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부터 거의 하지 않는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별분업방식-청소는 남성, 음식준비는 여성-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포기함으로써 균형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가족과 직장의 병행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한 흔적은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다. 직장생활 때문에 자녀를 더 가지지 못한 최순옥씨의 경우나, 아들을 더 낳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강미선씨의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면접대상 맞벌이 가족들은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양육에서 교육으로 관심이 전환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더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구순자씨의 경우 "내가 직장생활을 한들 애를 잘못 키우면 국가에나 나도 그렇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한테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잠시 잠깐 휴가를 내고 쉬더라도 그게 나나 미래에 대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에 (자녀의 학교에서 참석할 일이 있으면) 가려고 해요....주말부부인 최순옥씨의 경우 실제로 자신의 직장스케줄을 변경하였는데, 주중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회식시간을 줄여 참석하기 혹은 남편이 와 있는 주말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몰아서 하기로 작심하고 실천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자녀돌보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최순옥씨네는 남편이 주중에 한 번 더 집에 와 애를 혼자 돌보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다.

시간제약이 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맞벌이 주부가 사용한 해결책들은 남편과의 분담이외에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방식[2] 자신의 수면욕을

2) 고인숙씨와 서혜진씨처럼 양육을 '아줌마'에게 부탁한 경우도 있지만 청소와 세탁 다림질과 같은 가사처리에 강미선씨는 가사도우미를 사용하고 있고, 최순옥씨도 시도한 적이 있다.

거부하는 식의 금욕적 생활방식,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하는 방식, 아이들에게 분담시키기 위한 교육, 혹은 친척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방식, 기타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한 그릇에 비벼서 온 식구가 다같이 먹기' 식으로 가사노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2) 맞벌이 가족 아내의 가사분담 이야기를 통해 본 남편의 생활 ; 느리지만 변화하는 남편, 남편과의 가사분담 그 속의 성별분업

> 다른 것은 옷도 저희 남편이 다 다리거든요. 청소도 다 하거든요. 제가 하는 부분은 애들 챙기는 것. 약간의 일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셋째 낳으면서 가사분담도 틀이 좀 잡히는 거 같아요.....(구순자씨)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본 남편의 생활모습에 남편의 직장생활 이야기는 없다. 다만 가족생활과의 접경부분에서 남편 승진을 중시하면서 가사노동의 분담요구를 줄여주거나 승진준비로 인하여 가사분담이 적다면 양해한다고 한다[3].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내대신 자녀의 학교에 가기 위해 휴가를 낸다거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한 경우는 없으며, 두 사람의 회식이 겹친 경우에도 아내가 양보하였다. 만약 남편이 술자리를 싫어하더라도 회식이 아내의 직장생활에서 가지는 의미보다 남편의 직장생활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데 부부가 동의하고 있다.

아내가 회식할 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섞어 비빔밥을 하면서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들어 아내가 평소에 가사를 게을리 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구순자씨)남편의 경우를 보면,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시간제약이 큰 맞벌이 가족의 주부는 언제든지 비난을 받게 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의 회식 때 외식을 거부하고 손수 밥을 해서 먹이는 남편의 가정성 이데올로기는 종종 어린 자녀를 맡겨 키우는 가정으로부터 잠잘 때는 반드시 부모와 자야한다고 데려와 결국 아내에게 떠맡게 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아내가 가사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떠맡아 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저녁에 아이 시중을 남편이 들고 또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있다.

가정을 보는 시각에 대한 아내의 평가를 보면, 남편은 가정을 휴식처로 생각하되 아내들은 또 다른 근무처로 보는데[4],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에게 가정이 휴식처라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는 점과 달리 취업주부는 휴식을 하는 남편을 곱게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제보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 선 순간 가시화되는 성별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 곧 휴식자세-샤워, 소파에 누워 리모콘을 쥐고 tv보기, 를 취하되 당사자들은 부엌으로 가서 가사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취업이라는 평등주의적 체험은 가정생활에서의 평등에 대해 지속적인 기대를 낳는 듯하다. 그러나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점에 이른 구순자씨 같은 경우 "내가

3) 구순자씨는 남편이 밤늦도록 승진공부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도 도서관에 승진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로 인해 세 자녀를 아침마다 혹은 일요일 오후에 도맡아 돌보게 되고 그 때문에 힘들지만 양해한다고 한다. 김미라씨도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 주중에 아무런 가사책임도 맞지 않는 남편이지만 승진의 터를 닦아놓은 현재 근무처에서 집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도록 종용하지 않는다.

4) 서현아씨는 차라리 일하러 가면 마음이 편하다. 집에서 아프더라도 집을 나가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일 할 때 옆에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들의 생활모습을 종합해서 볼 때, 가사노동에서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 맞벌이 가족 남편들의 가사에 대한 태도라고 하겠다.

서현아씨는 "도시의 생활에서 가사노동이 뭐 있냐? 나눠 하면 금방 할 텐데, 여자 혼자하면 너무 힘들다. 늙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남편은)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서현아씨의 남편은 건축하도급자로서 일 주일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이며 육체노동을 주로 하고 있다. "제 주변에는 너나 나나(남편과 아내) 구별이 없어요."(서혜진)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가사노동을 하여 아내를 도와주고 있다. 정말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도 크다"라는 구순자씨의 이야기, "점차 변해가서 지금은 아내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도맡아 한다"는 고인숙씨의 남편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남편들의 가족 내 생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도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다. 지금은 아내보다 40분 늦게 일어나 씻지도 않고 바로 식탁에 앉는 구순자씨의 남편은 한 때 아내가 장거리 출퇴근을 할 때, 막내를 차에 태우고 아내를 통근버스에 내려주고 막내를 처가에 맡기고 와서 다시 남은 두 아이를 등교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부는 서로의 시간제약상황에 따라 가사분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부장적 사고가 가사분담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며 남성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오류이다. 한 시기의 집중적인 가사부담은 나중시기에 교환이 되기도 한다. 구순자씨 남편은 현재 승진을 위해 밤공부를 하고 일요일오후에는 도서관에 간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잦은 출장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양육을 도맡았던 최순옥씨네는 지금은 주말부부로 대부분의 양육책임이 아내에게 있다.

가사분담의 내용을 보면 청소는 남편 음식준비는 아내로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박혜경(2004:194)은 청소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미루었다가 해도 되는 일인데 비해 음식준비는 하루에도 세 끼를 신경 써야 하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서혜진씨네는 빨래와 청소는 전적으로 남편이 그리고 아이 키우기는 전적으로 아내가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서혜진씨는 남편이 30%-40%만 실행한다고 평가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혜진씨의 남편은 안과 밖을 구분하여 밖의 일은 가족 관련되는 일도 도맡아 한다. 이를테면 학교 운동회 참여, 학교에 애들이 빠뜨리고 간 준비물 가져다주기, 야외 나가 고기 굽기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내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평가에서 핵심이었다. 아내들은 가사에 대한 책임감의 공유를 원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만(김미라 씨: "시키면 다한다." 강미선 씨: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준다.") 책임을 떠맡는 남편은 소수이다(고인숙씨 남편 서혜진씨의 남편). 책임감을 공유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의 바깥생활에 대한 지지 혹은 가정 내 가사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가사노동을 도와준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남편들의 경우 '가사노동 안하는 가상적인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나만큼 도와주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이야기에 따라 남편이 자녀와 가지는 가족생활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쉬는 날 함께 산에 간다거나 주 중에 2회 정도 아이들과 대청소를 하고 또 아내가 직장일로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경우 '핀치히터'로 돌보는 경우로 그려진다. "해결은 해 줘예 해결은...(서혜진)"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훨씬 쉽게 자녀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2. 맞벌이 가족 자녀의 생활모습 :
그 속에 드러난 부부 책임의 한계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의 생활모습을 개략적이지만 재구성해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는 애, 엄마가 일 나가고 집에 없는 애"로 양분된다. 제보자들의 자녀들은 엄마가 집에 없는 애이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어릴 때에는 다른 사람의 보호아래 있고, 엄마가 집에 있는 자녀에 비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 후 스스로 돌보는 사람이 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린다.

1) 학령전 아이들의 생활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유목민의 아이들처럼 어려서부터 이동이 잦다. 출산 후 애들이 "서너 살이 되자" 취업한 서현아씨 네처럼,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운 후에 시설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되자[5] 일터와 집 그리고 시설이 가깝도록 공간설계를 하고 취업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을 지속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지속한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이들은 차타기 횟수가 현저히 많다. 극단적인 예로 구순자씨네 막내는 두 달이 지나 직장에 복귀한 엄마의 차에 사과상자에 실려 이모네집으로 출퇴근하였다. 대부분의 제보자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출장이나 늦은 귀가로 다른 집에 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 잠을 자다가 깨워서 집에 데려가지는 경우도 있고, 잠들었기 때문에 맡겨진 집에서 아침을 맞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엄마의 생활시간이 조정'되는 전업주부가정에서와 달리 '엄마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조정'된다. 너무 빨리 잠을 깨우거나 너무 늦게 잠을 자야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다양하고 불안정한 대리 양육 때문에 새로운 대리모 새로운 공간 등에 거듭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에는 부적응하여 아이와 부모-특히 엄마 혹은 이전 양육자인 할머니 등-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고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되 경우 다섯 시까지 하는 종일반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모로서는 행운이지만 아이에게는 어떤지 알 수 없다. 퇴근이 빠른 교사직 엄마는 종일반이 끝난 자녀를 집에 데려갈 수 있지만, 퇴근이 시간이 늦고 불규칙한 직업의 엄마를 둔 경우에는 미술학원과 같이 다른 한 곳을 더 거쳐야 집에 가게 된다. 반일반인 경우 누나나 형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의 가게에 가 있거나 외숙모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반일반 어린이의 경우 오후에 버스가 태워가는 학원을 두 세 개 다니면서 '보호를 받도록' 생활이 설계되기도 한다.

2)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활

맞벌이 가족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의 생활모습은 상당히 달라진다.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의 아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전제되므로 비교적 철저하게 보호장치가 설

5) 서문희외(2004:129 표4-3-4)에 따르면, 0세 아동의 3.2% 그리고 1세 아동의 13.3%만이 보육과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2세가 되면 기관이용이 급증하여 31.0%의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0-2세 아동의 평균 16.2%만이 기관에서 양육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어린 아동은 친모나 조부모등 혈연 그리고 탁아모와 같은 대리모에 의해 양육된다고 할 수 있다.

계되지만, 말귀를 알아들으며 만약의 경우에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미아와 방치의 상황[6]에 이르기도 한다.

최순옥씨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교 후 할머니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도록 했는데, 할머니는 이미 아이의 활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와 어울려 온 시내를 (서 너시간 동안)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오곤 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 최순옥씨는 하교 후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래층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친 후 다시 할아버지가 찾아 귀가시키도록 아이의 생활을 설계했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전제된 공부방의 비용과 피아노학원에 내는 비용의 실제는 사실상 안전하게 아이가 보호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 공부는 고사하고 보호만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최순옥씨의 생각이다.

구순자씨네 아이는 체육관에서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영장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차를 놓친 아이는 걸어서 저녁에 집에 도착하였다. 그 사이에 구순자씨는 미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 후 구순자씨는 둘째 아이가 등하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차로 태워가고 태워오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안심하고 있다. 구순자씨는 나중에 퇴직하고 맞벌이 가족 아이들을 원하는 사교육을 다 받도록 차태워다 주기와 같이 봉사를 하는 방과후 교사가 되겠다고 한다.

주변에 자녀를 돌봐줄 인적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넉넉하게 시킬 형편이 아닌 서현아씨 같은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수업이 끝나면 귀가하여 오누이가 함께 지내는데 컴퓨터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엄마가 함께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엄마들이 돈을 낼 수 있다는 경제력은 자녀보호의 필요와 맞물려 맞벌이 가족 자녀를 '학원돌리기'로 대상화한다. 지선희씨의 아이는 배가 고픈채 피아노 학원으로 가야한다. 맞벌이 가족 엄마의 염려는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쉬는 시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간식 섭취가 없이 학원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녀들은 엄마가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자부하게 되고 점차 맞벌이 가족의 생활양식에 적응해간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소득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서 소비의 중요성에 자녀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입장의 친구와 또 (여자)선생님도 엄마와 같은 입장이며 선생님의 아이들도 나와 같다는 점 등이 이해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가사분담을 어떻게든 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엄마의 식사준비를 돕기 위한 '양파 까기'에서부터 '자기방 더하기 방 한개 더 청소하기' 와 같은 가사분담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돌봄으로써 엄마 손을 덜어준다는 점이 그 것이다. 혹쉴드(2001)와 같은 학자는 이러한 방식-스스로 돌보기-의 자녀에 의한 가사분담을 **'일찍 어른이 되기'**라고 부른다. 열쇠를 혼자 열고 집에 들어가는 고인숙씨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나 오빠에게 간식을 주고 미술학원 차에서 내리는 동생을 받는 구순자씨네 둘째 딸(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그렇게 함)이 그 예이다.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되면서 점차 응석받이가 되어가는 것이 남성-생계벌이자, 여성-전업주부라는근대가족의 경향이라면 맞벌이 가족의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6) 전업주부 사례연구(김선미, 2004:43-60)에서 보듯이, 애가 오기 전에 집에 달려가며 학원을 챙겨 보내며 사교육을 잘 하고 있나 자녀와 교사를 옆에서 관리 감시하는 전업주부 엄마를 둔 아이들의 상황과 대조된다.

소결 --- 이제까지 맞벌이 가족 아내와 남편의 생활모습과 자녀의 생활모습을 살펴보았다. 고학력 취업여성을 다룬 사례연구에서 일과 가정사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이미숙, 2004;186)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맞벌이 가족으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분석할 때 가장 관심이 크며 무엇보다도 어렵고 다양한 경험을 한 영역이 바로 자녀 양육이었다.

전업주부가정 모델로 학교와 사회가 운영되는 것은 전업주부의 삶을 왜곡할 가능성으로 인해 자주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러한 관행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어머니의 전적인 책임과 실행이 당연시되는 영유아 양육, 엄마의 참여와 도움을 요구하는 학교는 맞벌이를 하는 가족의 관념도 지배한다.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계 - 잦은 이동과 양육자의 잦은 변경, 미아와 방치 그리고 그 두려움, 어린 자녀에 대한 금욕적인 생활의 강요,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에 대한 부러움 등 -가 뚜렷하지만 사회적인 제도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가 거의 완벽한 경우-고인숙씨의 경우-일지라도 부모의 근무시간 중 어린 자녀들은 "학원을 두 군데 다니는" 대안 이상의 대안이 없다. 혼자 있어서 위험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휴식과 놀이는 생략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바라는)적절한 영양섭취는 불가능하다. 이 점이 연구자가 보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복지를 과도하게 가족에게 위임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이제까지 공적 제도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싹트지 못하게 해왔다. 이미숙 연구(2004:186)의 사례[7]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대한 비평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제보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직 공보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8]. 자녀는 가족의 성원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이며 차세대 노동력이다.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의 원인이 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데에서 공보육의 문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공보육의 보다 근본적인 정당성은 인적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과제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맞벌이 가족의 생활모습에서 알 수 있는 자녀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보육체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Ⅳ. 맞벌이 가족 자녀의 양육방식과 문제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떤 가족에게나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동안의 자녀양육의 역사를 분석해 보고, 어떤 방식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그에 내포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7) 약사인 면접자는 역시 육아가 제일 힘들어요.....국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치피 개인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한다.

8) 구순자씨는 법원 홈페이지에 서울에서는 직장내 탁아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웠다는 표현은 하고 있다.

1. 자녀양육방식에 나타난 다양성 ; 넓은 선택의 폭? 아니면 적합한 방식의 결여?

제보자들이 가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상황에 의해 자녀양육에 동원되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그 선택 과정에는 부모들의 가치관도 반영되어 있다. 제보자들은 어린 자녀가 자라는 동안 다양한 방식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는데[9], 각 방식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 채용되었고, 다른 방식들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전 방식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자녀의 성장시기에 알맞은 양육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갈만큼 영유아의 공적 양육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때문에 한 사람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최선으로 여기는 부모로서는 보다 소극적인 이유-이전의 양육자의 질환이나 거부, 비용부담 등과 같은 - 에서 양육방식을 변경하였다.

하루 종일 어린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시기가 지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도 출장이나 야근과 같은 경우 간헐적으로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정간 상호교환과 같은 방식 혹은 지역 내에 마련된 시설을 통해 부모의 간헐적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부모가 보살필 수 없는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는 첫째, 확대가족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둘째, 공적·사적 시설을 이용하기 셋째,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기가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조정하기 즉, 휴직을 통해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휴가를 자녀돌보는데 활용하기 혹은 회식과 같은 부수적인 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양육하기 둘째, 자녀들을 일찍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내기가 있다.

최순옥, 구순자, 강미선, 지선희의 경우에는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 주로 어머님께 자녀를 맡겨 키운 후 공적 사적 시설로 변경하였거나, 공적 사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께 의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서현아씨와 고인숙씨 그리고 서혜진씨는 사적인 시설과 자녀의 스스로 돌보기 혹은 형제 돌보기에 의존하여 자녀를 양육해왔다. 서혜진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겨 키우고 자란 후에는 학원에 보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동거하는 친정어머니가 아프시자 고인숙씨는 아줌마의 손을 거쳐 자녀를 양육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이 채택해 온 다양한 양육방식은 선택의 다양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적합한 방식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어머니들은 우선적으로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기대한다. 그러한 기대가 성공하는 경우, 맞벌이 가족의 어린 아이들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외숙모 이모의 손에서 자란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나이가 되면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을 그러한 시설로 옮겨 적응기를 거치게 한다. 부모의 퇴근 시간과 양육시설의 하원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하원이후에는 이전까지 보살펴주던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친척의 도움이 없이 키워온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돌보거나 학원으로 맡겨진다. 초등학교에 간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방과 후에 보살펴 주는 것이 부모에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특별히 맡길 데가 없고 또 스스로 돌보기에는 이른 나이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학원으로 돌리기를 시작하며 아이가

9) 서문희외(2004)등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통계자료(99)를 분석해 보면, 나이가 어릴 때 조부모등 혈연과 탁아모등 비혈연에 의존하다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옮아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질적 연구인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의 일반적 체험과 일치한다.

조숙해지도록 훈련한다.

2. 각 양육방식의 특성과 문제점

이제 각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특성과 더불어 맞벌이 가족이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과 그러한 방식에 어떤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1)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구순자씨 네는 친정(둘째 까지는 친정엄마가, 그리고 셋째는 언니가)을 오가며 낮 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키워내고 저녁시간에는 아내가 주도하고 남편이 도와서 자녀를 돌보았다. 친정식구들은 구순자씨의 '자신들은 해 보지 못한 귀한 기회'라고 여기면서 취업을 지지해주었다. 최순옥씨는 시댁에 맡겨서 자녀를 키웠고 초등학교에 간 이후에도 엄마의 출근이후부터[10] 퇴근시간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시부모님이 해 준다. 김미라씨네는 친정의 올케언니에게 자녀를 맡겨서 키웠고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김미라씨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에 다녀온 이후 시간을 외숙모네에서 보낸다. 강미선씨는 큰 애를 친정어머니가 키웠고 어린이 집에 다닌 후 가게를 하는 시어머니가 데려가고 데려오는 식으로 키웠다. 지금도 시어머니가 초등학생을 방과후 가게에서 돌봐준다. 지선희씨는 친정어머니(74세)를 집에 모셔 아이를 키웠다. 고인숙씨는 친정어머니께 맡겼는데 연년생이 나오자 둘은 못 맡길 것 같아 보다 어린 아이를 아줌마에게 맡겨 길렀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바, 확대가족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내포된 문제점은 비용의 문제와 착취의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양육자가 갑자기 양육을 중단하기 쉬운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한꺼 번에 다 맡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첫째 비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한 아이를 도맡아 키우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 그리고 돌봐주는 시간이 바뀔 때 어떻게 비용을 조정해야 하나의 문제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다른 가족관계에서 맞벌이 가족의 부부 특히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려움이 된다.

둘째, 착취의 가능성이 있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댈 경우 무조건적 사랑이 전제된 보살핌 때문에 대리 양육자가 착취당할 수 있다. 자아실현과 개인주의적인 직장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미라씨는 친정오빠가 부모역할을 했다고 믿고 친정올케에게 두 아이를 맡길 뿐 아니라 본인의 식사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 김미라씨는 페미니즘과 가부장제에 두루 기대면서 자신의 생활을 "이기적으로(본인의 이야기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함)" 꾸려가고 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댈 경우 분명한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자녀양육을 위해 동거를 하는 경우 받는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지선희씨처럼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시어머니 눈치 보기, 친정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길러내신 후 나이가 들어 아프셔서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시어머니가 비난하는 것, 친정어머니와 잘 지내기 힘듬, 말대꾸해드려야 함, 간섭, 추가적 비용부담(옷 살 때 같이 사야하고...)등이 포함된다.

넷째, 양육자의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문제도 있다. 건강악화 등 긴급한 이유로 양육을 중단해야

10) 최순옥씨의 출근 시간이 아이의 등교시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이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댁으로 가서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간다.

하는 문제, 할머니가 돌보기 때문에 질병이나 가정 내 안전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경우, 아이의 활동반경을 따라잡지 못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다섯째, 두 아이를 다 맡기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기대어 양육한다는 것은 한 아이를 한 어른이 키우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연년생을 가진 경우 나누어서 맡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확대가족의 양육자는 나이든 시모 혹은 친정어머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맞벌이 가족의 관리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2) 공적·사적 시설을 이용하여 ; "학원으로 보통 다 돌릴걸요(고인숙)"

서현아씨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나서면서 교회의 탁아시설(선교원)에 두 아이를 맡겨서 양육하였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무실에서는 빠른 출근을 요구하였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선교원의 교사로서 시설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재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특별수업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사설학원에서 무술을 배우게 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지선희씨는 저녁시간에 아이를 돌 볼 수 없어서 학원에 보내고 있다. 지선희씨는 아이를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보내는 느낌이라고 한다. 강미선씨는 "학교 앞에서 시작하죠...학원 갔다가 다른 학원 갔다가..."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구순자씨는 첫째 아이를 잃어버린 기억으로 방과 후 안전을 고려하여 둘째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안전하죠. 제 마음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그 시간(작년엔 4시 올해엔 5시)이 되면 무조건 집에 오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죠." 셋째는 종일반을 하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미술학원 차가 유치원 끝나는 4시50분에 여러 명 애들을 데려간다. 최순옥씨는 아이가 친구와 어울려 방황하지 않도록 공부방에 보내고 다시 피아노학원에 보낸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자녀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적·사적 시설에서 아이들은 다른 처지인 경우 소외감을 같은 처지인 경우 호감을 느끼고 있다. 유치원의 종일반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자들은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아이들과 다른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껴 싫어한다. 종일반 하는 것을 싫어한다." 종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구순자씨네 셋째 아이는 같은 처지의 다른 아이와 함께 오후 다섯 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겨 키우는 경우 문제점은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다. 조기출근 혹은 늦은 퇴근시 사정해서 어렵사리 무리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한 아이를 한 어른이 맡아 키우는 경우 아니면 최소한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와 달리 아동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 혹은 안전사고 등도 염려한다. 어린 아이를 시설에 맡길 경우 같은 직장 동료의 시누이가 하는 곳이어서 안심했다는 이야기는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일반적인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초등교육기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질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이 어렵고 집과 가까운가가 결정적이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원을 돌아다니는 경우 중간에 시간상 공백이 있거나 이동과정에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어머니들의 주요 고민거리이다. 또한 각 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에 비추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취업주부는 취업의 중단을 고려하였다.

3)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기

제보자들의 양육방식을 검토할 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의 부재는 확연히 드러난다. 출생 직후부터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한 명의 성인에 의해 사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확대가족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아줌마'양육자를 찾게 되는데 고인숙씨가 그 경우이다. 고인숙씨네는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는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겨 키웠다. "출퇴근 시간이 부담스러운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를 맡기기 쉽고 찾기 쉬운 같은 라인의 아줌마는 그만큼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고인숙씨 남편의 이야기이다. 그 때문에 고인숙씨 남편은 동료교사들에게 아줌마를 구할 때 아파트라인에 붙여 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서혜진씨도 "시댁과 친정의 도움이 모두 약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후 출산휴가 2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고 15개월째에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그 후 유치원으로 맡기면서 아이를 키웠다.

제보자들에게 '아줌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고비용도 이유가 되지만 1대1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데에서 오는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친부모처럼 혹은 조부모처럼 애정을 줄까" 혹은 "아이가 아플 때 엄마처럼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주된 염려꺼리이다.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살펴 줄까", "사고가 생겼을 때 부모처럼 대처해 줄 것인가"가도 포함되어 있다. 병원가기와 같은 추가적 부탁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퇴근이 늦어질 때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고인숙씨는 "아줌마의 행동반경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 저녁시간에 양육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이는 낮시간동안의 업무부담에 따른 이중부담과 피로감의 표현으로서 아줌마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의 특수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에 밤 시간에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의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확대가족네트워크에 맡겨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저녁에 데려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경우 아이는 반드시 데리고 자야한다는 남편들의 주장을 말하기도 하였는데, 저녁시간에 주로 아이를 돌보는 제보자의 경우는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휴식을 위한다는 이유에는 보다 적극 동의하였다.

4)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조정하기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취업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일 때, 어머니의 휴직은 결코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제보자 가운데 교사와 판사부부인 강미선씨의 경우(소득과 자산의 수준이 다른 제보자에 비해 높음) 유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그 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제보자들도 결코 휴직을 고려하지 않았다. 강미선씨의 시어머니는 딸만 둘을 낳은 강미선씨의 어린 자녀를 키워주지 않았으나 아들을 낳으면 키워줄 테니 셋째를 낳으라고 한다. 확대 가족네트웤의 활용에 있어서 가부장제의 흔적이 보이는지는 중요한 관심꺼리가 된다. 강미선씨는 휴직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나 휴직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여 초등학생 자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식시간을 줄여 저녁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맞벌이 어머니들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 회식문화가 직장생활에

서 여전히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머니들의 잦은 결석은 직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업무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잦은 회식 늦은 귀가의 문화와 어머니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도 맞벌이 어머니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혼자 일하는 서현아씨만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에 야쿠르트 배달을 잠시 쉬고 집에 들러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5) 자녀들을 일찍 키워내 스스로 돌보게 하기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는 자녀를 얼른 어른이 되게 하여 스스로 돌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살피게 하고자 하였다. 구순자씨는 둘째아이를 "긴장을 시켜버리니까 야생마 같던 아이가 잡혔다.....오빠는 6학년이 되어서야 하는 일-열쇠로 집을 열고 들어오는 일을 여섯 살 때부터 했거든요. 혼자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혼자 학원을 다니고 오빠도 챙기고 막내도 받고". 구순자씨는 여자아이인 둘째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면접 도중에도 끊임없이 둘째 아이가 자신의 일과 오빠의 일을 의논해 왔다. 서현아씨네 큰 아이도 둘째 아이를 돌보고 또 스스로를 돌본다. 고인숙씨네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은 혼자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간다. "문을 잘 열어요. 애기인데 지가 잘 열고 들어오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12세가 되기 전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와 달리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다. 즉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나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취업을 원하여 대비하는 전업주부를 면접한 결과(김선미, 2004)를 보면, 낳아서부터 엄마와 같이 지낸 자녀들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이 되는 10세부터 11세 나이가 되면 혼자 있을 수 있고 열쇠를 간수하고 집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엄마들의 의견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 연구의 사례에서 서현아씨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직후부터 그리고 구순자씨네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직후부터 스스로 돌보도록 요구되었다. 서현아씨네 아이들은 길을 잃어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 준적이 많다고 한다.

혹쉴드(2002)의 맞벌이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는 "풍부한 가족생활을 남겨주기 위해 부모가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를 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인데, 맞벌이 가족의 일반적인 금욕주의적 태도가 어린아이를 빨리 어른이 되게 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중역할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찍 성숙한 자녀에게서 관심을 돌려버릴 가능성은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잠재해 있다. 조숙하게 스스로 돌보도록 요구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해도 성장기의 많은 시간들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도외시되는 문제는 남아있다. 서현아씨의 자녀들은 학원에 다녀오는 시간이외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한다는 것이 서현아씨의 큰 염려이다.

<u>소 결</u> : 이 장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의 다양성과 각 방식의 특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족은 자녀양육의 요구를 접근가능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모든 대안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보자들은 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의 요지는 영아보육의 일차적인 대리인이 나이가 많은 조모라는 점 그 외의 대안은 경제적 심리적 고비용의 아줌마라는 점이다. 또한 기존 유아보육기관은 직장생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있

는 출퇴근시간 혹은 출장과 같은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없고, 또 전업주부자녀들로부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동의 안전사고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염려가 되는 이슈였으나 부모가 키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게 되는 전환기의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이 이 연구의 면접결과 크게 드러났는데, 문제의 요지는 종일 가족 밖에서 양육되어오던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갑자기 반일반에 해당하는 학교프로그램으로 인해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렵다는 점이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설 학원을 전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맞벌이 가족 부모는 교육보다는 보호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비용을 과다 지불하면서도 시간적 공백과 이동에 따른 미아의 염려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미아와 방치'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모의 심정이며 이는 막연한 불안이 나니라 그들의 경험에 근거한다.

다양한 자녀양육방식이 있고 그 것이 대안으로 평가되고 수용되지만 각 대안이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곡예를 하는 것'과 같다. 제보자들은 뒤돌아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할 거 같다, 끔찍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까? 출산률이 1.19명으로 낮아져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주안점은 바로 영유아의 공적 보육체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호 교육 체계일 것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을 지지한다는 시각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이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각이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공적 영유아 보육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맞벌이 가족의 필요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맞벌이 가족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겠다.

V. 정책 제언

이 연구의 앞 장들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가 책임질 수 있는 자녀 양육의 한계와 또 현재 사용하는 양육방식의 문제점이 가족의 시각에 비추어 뚜렷이 드러났다. 양육지원은 국가의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인구정책 교육정책의 측면을 다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11].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최근들어 축적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만 양육당사자인 가족의 필요가 반영된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별가정에 맡겨져 있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제적 고비용과 다양한 부담을

11) 보육정책은 첫째, 가족정책의 측면에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며 둘째, 사회복지측면에서 균등한 보육기회의 보장 및 빈곤의 예방을 포함하며 셋째,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유지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을 가지며, 넷째, 인구정책에서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있어야 하며 끝으로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조기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과 축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Jampert,et.al.,2003, 장지연외 2004:144 그림 6-5참조). 그러나 이 연구는 이 가운데 가족의 필요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지기 때문에 공적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출산직후부터 두세 살까지의 어린 자녀들을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장지연 등의 연구보고서(2004)에서 양적 통계 자료에 의해 보더라도 현재의 보육시설은 취업모에게 도움은 되지만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시간탄력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힘들다고 한다.

질적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조부모 등 확대가족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이 없고, 또 탁아모 비용을 충당할 만한 벌이가 아닌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기관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의 빈곤층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 영아보육기관의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확대가족네트워크의 이용이나 탁아모의 이용에 따르는 불안정성과 고비용 심리적 부담은 그러한 대안이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하며 공적 기관에 의한 양육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면접결과 드러난 보육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보면,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혹은 원거리 출장 등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보육시간의 연장, 심야보육, 24시간 보육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이슈이외에 이동에 관한 이슈도 중요하다. 아동이 보육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부모대신 가능해야 할 것이다[12]. 그 외에도 친숙한 사람에게 의탁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다양한 염려-사고대비[13], 질병대비, 충분한 애정-를 줄여줄 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가족의 (변화하는)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14].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공동관심은 더욱 진작될 필요가 있다. 확대가족네트워크에 기대어 양육을 하거나 탁아모에게 맡겨서 양육을 하거나 정교하게 마련된 공적인

---

1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는 아동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상시지원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접근 가능성은 차가 없는 빈곤가계 혹은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 대중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나 아동을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3) 울산소재 현대자동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2개월이 지난 영아 탁아가 가능하다. 모유를 짜서 먹일 수 있는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천기저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 아동 비율은 1:3이며, 영아의 경우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평가되는데 설립당시 영아반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는 교사를 감시하고 또 한 편으로는 교사를 보호한다. '영아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교사의 유기와 학대를 감시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영아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사고발생시 혹시 어린이집에서? 라는 회피기제를 발동하기 쉬워 정확한 원인을 밝혀 교사를 보호하는데도 효과적이다(어린이집 창설과정을 지도한 교수가 필자에게 직접 제공한 내용임).

14) 일본 유학중에 영아를 보육해본 연구자의 동료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라시의 경우 2개월만 되면 보육센터에 아동을 맡길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정도 자녀 양육이 가능하며 시단위 보육센터에서 심야보육 대상아동을 데리러 온다고 한다. 또한 보육센터에 지불하는 보육료는 부모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례해서 내지만 보육담당교사는 공무원이므로 부모가 내는 돈에 따라 편애하지 않게 된다고 믿는다..... 영유아의 교사는 청결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소극적 활동만 가르치지 않고(둘째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나라의 사설 유치원에서 느낀 점) 출근직후 반드시 제복인 츄리닝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처럼 놀아주었다. 또한 자기 애는 자기 애가 데리고 키우지 못하게 막았는데 편애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애는 자기 시설에 못 데려왔다..... 3세 아이까지 내부활동을 주로 하는 아이를 맡는 시설과 활동성이 큰 3세 이상 아이를 맡는 시설은 차별화하여 후자의 경우 운동장이 중요한 시설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부모가 안심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는데, 1년간 계획표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그날 그날 급식모델을 전시했으며....원활한 의사소통(특기사항 기록,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학교로...매일)을 했고 아동의 건강과 다른 아동에의 전염 등을 신경 써서 체온을 측정하고 1도만 올라가도 부모가 데려가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양해도 쉬운 편이다.....개인적인 의견은 반드시 공립이어야 하고 집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구를 중심으로 몇 개가 있어야 한다. 구청(family support center/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집 가까이에 있는 보육센터를 배정받는다.....

기관에 의해 양육을 하더라도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인데 여전히 여성이 그 책임을 전담한다면 일-가족 양립을 위한 공적 보육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가진 맞벌이 가족을 면접한 결과, 영유아의 보육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맞벌이 가족에게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15]. 방과후 학교가 공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시점에서[16] 자생적 방과후 학교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동아일보 2005년 5월 12일자, 20여명의 초중학생을 보호하는 방과후 교사에게 연간 1400만원이 지급됨)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학과공부이외의 독서나 노래 간식제공 등 매력적인 운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지만 차량유지비나 병원비까지 부담할 경우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부산일보, 2005년 5월 4일자).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은 방과후 학원을 한 두 군데 다녀온 후 특별히 친척에게 맡겨진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아니면 형제 자매가 함께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면접자료의 분석결과 '학원돌리기'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을 크게 하면서도 공백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지 못했다. 학원이 끝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들은 시간관리능력의 미숙으로 학습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적극적인 휴식이나 영양섭취가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학원과 같은 사적 시설이 가까이에 없는 농촌지역이나 또 학원이 있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에게는 방과후 공적 보육은 더더욱 절실하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우선 맞벌이 가족이 "다 보낼 수 있고, 다 보내고 싶을 정도로" 사교육시장보다 매력과 잇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부모들이 사설 학원에 보내는 이유에 더하여 그러한 학원이용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효과까지 담아내야 할 것이다. 훌륭한 방과 후 전문교사[17]와, 미아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교육(학습능력 유지 및 함양)과 보호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가정과 같은 안락한 시설을 통해 아동의 필요를 채우고 부모의 염려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습지도와 더불어 예능과 체육 취미활동을 포함하여 고르게 인성을 발달시키고 또 아이들이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학교의 과제를 마치는 일이나 준비물을 갖추는 일 등을 방과후 교실에서 도와준다면 늦게 귀가하는 부모와 보다 완화된 방식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후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을 가족이 데려갈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데려다 줄 수도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다[18]. 방과 후 학교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이른 등교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원에 보내는 맞벌이 가족 부모들의 우선 목표가 자녀의 안전한 보호이고 그에 더한 교육효과라고 할 때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결과적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15)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전체 아동의 31%라고 한다(시민의 신문 제 596호 17면).

16) 교육부의 안은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체계를 도입한다고 한다.

17) 구순자씨는 퇴직후 방과후 교사를 하고 싶어한다. 교사의 여성화에 따라 남성어른과의 경험을 주기위해 스웨덴에서 학급할아버지 제도를 실시하였듯이 취업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것도 경험에 근거한 심정적 개입과 보다 섬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만하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은(전라일보, 2005년 4월 27일자) 사교육비경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생 보조 인력풀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 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1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육지원은 구청관할 내의 방과후 학교에서 차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맞벌이 가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겨우 꾸려나가는 현재와 같은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며, 그 가운데 영아를 공적으로 양육하는 체계의 구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이 연구를 통해 거칠게나마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애환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언하였는데 향후 보다 섬세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적극적으로 할애하지 않고 외부세계에서의 성취만을 지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상위의 욕구를 가족단위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미(2004). 30 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경(2004).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여성학강의. 동녘, 184-209.

서문희 · 김미숙 · 박세경 · 최은영 · 임정기(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숙현(2004). 고학력 여성의 취업 중단과 재진입. 일과 가족 사이. 조은 글터, 149-204.

이미숙(2004). 고학력 여성의 일과 스트레스. 일과 가족 사이. 조은글터, 205-240.

혹쉴드 · 알리 러셀 저(2002, 백영미 번역).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이야기: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아침이슬.

장지연 · 이정우 · 최은영 · 김지경(2004). 일 ·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